

탐방 포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포항 운불련은 7월16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운불련 체육대회에서 축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법륜 굴리며 보살행 앞장

92년 창립...보경사 원찰  
매월 무료급식·차량 지원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운전기사불자들의 모임이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신생활에만 매진해온 단체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은 포항 운불련은 60여 명의 개인택시 운전기사 모두가 몸집 불리기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충실하며 수형 및 사회봉사활동에 열심수행하고 있다.

포항 운불련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전10시 보경사에서 주지 법달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고 있으며 둘째 일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 무료급식과 차량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에서 주지 법달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고 있으며 둘째 일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 무료급식과 차량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96년 3월부터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체결, 매월 지체장애인을 위한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다. 매월 복지관 장수식당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 노인 무료 합동결혼식이나 호도관광등에도 차량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2만 포항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포항 운불련은 법문테이프를 들어주거나 경전의 말씀을 직접 전하면서 승각들의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등 조용한 수행속에서 뜨거운 신심으로 거리의 포교사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호출택시(0562-281-2211)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은 앞으로 사회법당을 마련한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관용재 회장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기억에 남는 운불련이 되겠다"면서 "운불련을 애용하고 아껴달라"고 말했다. 0562-277-9943 포항=이윤호 기자

지자체 불자회 170여곳 활동

매년 꾸준히 증가... "자비로 대민봉사"  
강남구청·시설관리공단도 내달 창립

지방자치체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불자회 결성이 두드러지고 있는(조계종 포교원 조사결과)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불자회가 10월31일 동시에 창립될 전망이다.

강남구청 불자회는 지난해 6월, 팔공산 사찰순례를 함께 한 10여 명의 불자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하면서 모임을 드러내게 됐다. 지금은 1백여 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입회원을 냈을만큼 참여 열기가 뜨겁다. 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대학 이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불자회 결성을 발의한 주재과 양승원씨는 "그동안 강남구청에는 '반석회'라는 개신교모임은 있었지만 불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임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불자회 창립은 개개인의 신생활들은 물론 불자공무원들이 불교적 신념과 이념으로 대민봉사에 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현문화복지관, 대치문화복지관 등을 돌아보며 10월31일 창립 법회 장소 섭외에 한창인 강남구청 불자회는 매주 1회 경전공부와 사경법회, 매일 한차례 정기법회와 3개월에 한번씩 전국 명찰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남구청 불자회는 더 나아가 향후 승·재가 함께 참여하는 '강남구 불자연합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화장장, 대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업무를 맡아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불자회 창립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 8월 각 직장불교회에 자문을 구한 시설관리공단 불자회는 4월 1차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10월2일 2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불자회 창립 발기인들은 10월31일로 예정된 창립법회를 앞두고 공단을 8개 구역으로 나눠 불자회 홍보 및 불자회원 배가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편, 전국 관공서 및 정부 투자기관 불자회는 1백70여 곳(99년 조계종 포교원 집계), 94년 교정인연합회 등 6개 단체, 95년 부산 연제구청 법우회 등 3개 단체, 96년 경북도청 불자회 등 9개 단체, 97년 충청거래위원회불자회 등 4개 단체, 98년 한전 월성발전소 불자회 등 4개 단체 등이 창립됐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자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걸다리로 끼어서 신생활을 하다가 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쉬웠던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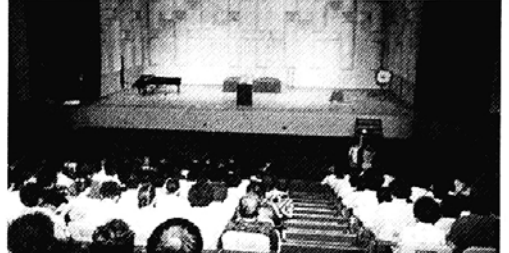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산 사하구사암련 보현의집 위문

부산시 사하구사암련(회장 종원)은 13일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을 방문하고 23개 사찰에서 모은 쌀 67마, 내의류 1백50벌, 고무신, 떡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종원스님은 "불우이웃 모금활동을 벌여오던 단위 사찰들이 힘을 모았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 통일맞이 민족화합 음악회

통일맞이 민족화합대법회 및 자비실천음악회가 13일 KBS 부산홀에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불교신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개식법회, 자비실천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신문 사장 조연스님은 "은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신라문화원 6돌 기념법회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3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개인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 이어서 우룡스님을 법사로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큰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큰스님 초청법회는 우룡스님에 이어 10월 4일 해국스님, 12일 진철스님, 26일 서암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은평노인복지관 산악회 발대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스님)은 노인들의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은빛 산악회'를 조직하고 지난 11일 복지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1백20명의 노인회원으로 구성된 은빛산악회는 발대식 직후 북한산 삼전사로 1차 산행을 실시했으며,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캠페인도 벌였다.

동산 포교사단 법문발표회



동산포교사단(단장 이차환)은 3일 동산고교회관에서 단원들과 후배,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 10분 법문 발표회를 가졌다.

우리 모임에선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문 발표회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또 동산포교사단은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포교사 의식 수련회도 갖는다.

강원호 명예기자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 창립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회장 김의식)는 27일 오후6시30분 관악산 백운사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343)380-0382

열린민족산악회 등반대회

열린민족산악회(회장 고준환)는 19일 군포 수리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등산에서는 수리산 삼림욕장에 둘러 약 7백70m에 걸쳐 조성된 '땀발로 걷는 길'을 걸었다.

열린민족산악회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실시,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하면서 민족정신을 함양할 방침이다. 018-316-7283 안성조

"정보리 포교 앞장서겠어요"

서경인 교사련 창립2돌 법회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1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정령 포교원장, 현진 포교부장 스님을 비롯 교사불자 1백여 명 등이 참석했다.

임완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경인 교사불자회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임대했던 저력있는 단체인만큼 모범이 돼 전국 선생님들을 포교하고 청소년을 정법으로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 산악인 통일이지 다진다

전국불교산악인련 10월3일 대법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동달기' 운동에 벌이고 있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가 10월 3일 지성 수행도량 강릉 2주년을 맞아 안동 흥사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를 연다.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발원하고 불교 산악인의 포교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1일 흥사에서 증우형 문화재 48호인 만봉스님이 직접 그린 '효행도' 봉안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봉안사 주지 인공스님을 비롯 서울 등부불교산악회와 안동불교산악회 회원, 일반 불자 등 1백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 영가 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십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지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문사: 원어는 물론 출판사로 인력수선서로, 영언어책을 드립니다. 동선 효림

우룡큰스님 법문집

##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권판 / 240면 / 값 5,000원

전화 : (02) 587 6612 · 582 6612 · 팩스 : 586 9078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야 해외 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펴보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 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베트·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야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 문의전화 : 선재여행사 (02) 582-6647-8  
불교신행연구원 (02) 582-6613